

최근 미국 실물경기 동향(Beige Book)

□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는 3.15일 금년 1~2월중 미국 실물경기 동향(Beige Book)을 발표

* Beige Book은 FRB가 12개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관할지역의 기업 활동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간 8회, FOMC 2주전에 발표하며 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정책금리 결정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

-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가운데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
- 대부분의 지역 FRB들이 관내 경제상황을 '소폭 또는 건조한(moderate or steady)' 성장세로 규정했다고 소개

<부문별 동향>

- 소비지출은 2월에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, 기업지출도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
- 고용은 대부분의 지역과 부문에서 호조를 지속하였고, 특히 거의 모든 지역이 고숙련 근로자의 부족을 지적
-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둔화되고 있는 반면,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2005년 말보다 호조
- 가계대출의 경우 모기지 수요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둔화(mixed or weak)된 반면, 기업대출은 증가세

- 가계 및 기업의 신용도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(mostly favorable)
 - o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요소비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, 소매물가는 소폭 증가에 그침
 -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임금이 소폭 상승하는 등 노동비용 압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
- FRB의 베이지북을 근거로 할 때 금년 1/4분기 미국 경제는 05.4/4분기의 일시적인 경기급랭(GDP +1.6%)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
- o FRB의 베이지북은 전국적인 체감경기를 종합 정리한 자료인 만큼 최근 소매 판매(2월 Δ 1.3%), 고용(1월 +17만명 \rightarrow 2월 +24.3만명) 등 엇갈리게 나온 부문별 경제지표들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
- * 베이지북 발표 후 주식시장은 S&P500 지수가 5년래 처음으로 1300을 돌파(3.15일 1303, 3.16일 1305)하는 등 랠리를 시현
- 한편, 금번 베이지북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평가를 다소 완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서 향후 FRB의 정책금리 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임
- o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3.28 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정책금리를 현재 4.5%에서 4.75%로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, 그 이후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은 종전보다 낮게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

(자료제공: 워싱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양행민 (☎3779-6676)
E-mail : haengmin@koreaexim.go.kr